

Open Doors

2018. 6. Vol. 194

박해와 선교현장

요르단 *Yordan*

Yellow ID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하세요.

TALK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 성품의 부요함을 영원히 탐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할 뿐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는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또한 앞으로 더욱 친해지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 더 많이 보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구하고 기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교 교사이다. 율법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인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인도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게 되었든,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하였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항상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그리스도인 남자가 “나는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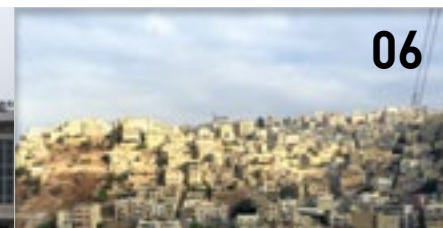
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며 그 뜻을 재확인해 주기 위한 음성은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거리로 이용할 생각이며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 좋은 지침이 있다.

당신이 특별한 인도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해 보라.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면 된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진정으로 알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때는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중심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특정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직장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먼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그녀에게 이사할 것을 격려하고 돕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을 의지하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인도하심을 확신시켜 달라고 구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04



06



14



16



18

04 북한 선교 현장 북한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06 박해와 선교 현장 요르단-Jordan

14 2018년 어린이 박해 지도 신청해주세요.

16 오픈도어 사역

트라우마 치료: 인도(India)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스리랑카(Sri Lanka)

20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새단장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300 기도용사 모집

23 2018, 시리아에 희망을

OpenDoors 2018년 6월호 | 통권 194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정규일,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조이, 루나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정규일 목사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201-884969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772002-04-066312

성경교재 프로젝트: 우리은행 163-099071-02-101 *예금주 김성태

순교자의 자녀와 미망인 돌봄: 신한은행 100-027-219169

가족 트라우마치료: 우리은행 1005-001-884989

동북부나이지리아 구호헌금: KEB하나은행 223-13-02233-5

희망의 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나의 출애굽기

드보라

나의 아버지는 동네 유명한 깡패였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보더니 훌쩍 반해서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억지로 결혼하자고 했다고 한다. 단순한 억지 수준이 아니라 결혼 안 해주면 집에 해코지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는 반면에 그 당시 여자들이 가기 힘든 대학도 나오신 분이었고 외할아버지도 해외에 유학을 다녀온 학식 있는 집안이였기에 길길이 뛰면서 반대를 하셨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이어졌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뿐이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결혼 후에 마음을 고쳐먹으셨다. 결혼한 순간부터 싸움을 그만두고 깡패 친구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항상 잘해주셨다.

아버지는 직장으로 한 화학 공장에 다니셨다. 그 공장은 살인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공장이었다고 기억한다. 인체에 나쁜 매연과 환경 때문에 건강이 계속 나빠지셨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군수품 공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다. 그러다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벌목공으로 해외 노동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비록 몸은 고되다 하지만 3년 정도만 일하고 오면 다른 곳으로 배치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벌목공으로 지원해서 가셨다. 낮 설은 타향의 추운 지방에서 쿡구멍에서 얼음을 뜯어내면서 당과 수령을 위해 온몸 바쳐 충성했다.

아버지가 해외로 간 후 우리 가족은 시골 외갓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 후로 계속 거기서 살았다. 언니와 동생들은 해외의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아버지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서 한 달에 한번씩 아버지에게 보냈다. 그렇지만 나는 무슨 심술이였는지 한번도 편지

를 안 썼다. 돌이켜보면 예쁜 것 사랑스러운 것을 한번도 안 했다.

벌목공으로 가셨던 아버지는 3년만에 돌아오셨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가기 전에는 건장하고 듬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몰라보게 험췌해졌기 때문이다. 진하게 검었던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물이 맞지 않고, 1년 내내 여름 한번 없는 북극의 추운 지방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서 대머리가 되어 버리셨고 두툼했던 얼굴 살은 다 어디 갔는지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일을 했지만 북한 당국의 당자금으로 동땅 작취당했고, 단 1원 한푼도 못 받고 러시아 빵 3박스만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것을 위안 삼아야 했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학교에서 집에만 오면 언니와 동생들과 맨날 싸움박질을 해댔다. 이렇게 나는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칭찬을 잘 받는 모범학생이지만 집에만 오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생활을 하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갔다.

그 당시 우리가 살았던 외할아버지 댁은 함경도 산속 시골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산에 감자나 밀, 보리 등을 심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사셨다. 듣기로는 유학도 다녀오시고 원래는 평양에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시골에 계시는지 어린 나이에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상하게 외할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놀러 오는 나와 외할머니에게 오전에는 옆집에 가서 놀다가 오라고 보내셨다. 그 날은 꼭 인근에 몇십리 떨어진 산골짜기의 다른 집에 어른들 몇 분이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오전에

는 다른 집에 가서 놀다가 오후에 오라고 하곤 하였다. 우리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전처와 사별하고 이후에 재혼하셨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순종적인 분이려 외할아버지 말씀에 묻지도 않고 하라는 데로 옆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셨지만 나는 괜히 불만이었다. 그 당시에는 일요일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딴 데 가라 하시는지, 빨간 날은 휴식하는 날인데 왜 집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 궁금은 했지만 워낙 어릴 때라 짜증만 내고 말았다.

나중에 탈북을 해서 남한에까지 온 다음에야 나는 왜 외할아버지께서 그러셨는지 알 수 있었다. 하루는 탈북 성도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자신이 선교 사역 중에 입수한 북한에서 나온 중국어 성경책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다.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문으로 기록된 옛날 성경이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전에 어디서도 그 책을 본 적이 없어야 할 터인데 분명 내가 확실히 본 적이 있는 책이었다. '왜일까? 왜 내가 저 책이 낯설지 않을까?'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나는 그 책이 외할아버지 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 북에 있을 때 골동품을 밀수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집에 팔만한 것들을 찾다가 한자가 잔뜩 적힌 책 한 권을 보고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사진 속에 책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자 외할아버지가 일요일마다 나와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남모르게 믿음을 지킨 크리스천 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함경도 산골짜기로 오게 된 것도 종교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다행히 교회 내 주요 인사가 아니셨는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생명은 부지하셨지만 추방을 당해 이 산골짜기까지 오셨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요르단 Jordan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92%)
-인구: 1,024만명, 기독교인 약 129,000명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21위
-수도: 암만(Amman)
-주 박해요소: 이슬람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민족적 기독교 적대감(Ethnic antagonism)

요르단은 박해지수 66점으로 기독교 박해국가 21위에 올랐다. 작년의 세계박해순위(World Watch List, WWL) 기록에 비해 박해지수가 3점 상승했다. 요르단의 박해지수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도된 폭력사건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폭력사건의 피해자는 주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MBBs)이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

요르단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요르단의 주요 박해원인 중 하나인 이슬람교의 탄압은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요르단 정부는 여러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요르단 사회에 이슬람 가치와 법률 준수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개인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는다.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요르단에 살고 있는 모든 유형의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배우자가 무슬림이거나 무슬림과 소송이 걸려 있는 자라면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적용 받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요르단 기독교인들에게 허용된 '종교적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며, 요르단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이슬람 전통이 이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 한편 '이슬람교의 탄압'은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해지기도 하며 이는 정부의 탄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점점 더 많은 요르단인들이 이슬람국가(IS)의 극단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처지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민족적 기독교 적대감(Ethnic antagonism):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요르단 사회의 전통 규범과 가치관이 부족 중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민족적 적대감은 정통 종교의 형식을 띠기도 하는데, 요르단의 경우 이슬람과 민족정서가 결합되어 나타나며 이는 특히 무슬림배경의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요르단 사회, 특히 대도시 외의 지역은 기본적으로 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르단 민족주의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 1967년 이스라엘과 3차 중동전쟁 또는 '6일 전쟁'을 치른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요르단은 '이스트뱅크'(동안(東岸)주민)과 '웨스트뱅크'(서안(西岸)주민)으로 나뉘게 되었다. 전자는 요르단 강 동쪽에 기존에 거주하던 순수 요르단인을, 후자는 요르단

강의 서편인 팔레스타인에서 유입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부족주의는 이와 같은 민족적 분열을 더욱 부각시킬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족과 씨족, 부족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스트뱅크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고용과 정치적 및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우세를 가진다. 이렇게 순수 요르단인이 사회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요르단의 민족주의의 개념 속에 부족주의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역시 순수 요르단 기독교인들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요르단의 기독교 사회는 요르단 왕가가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고 평화로운 공존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거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기독교인들을 감시한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박해를 당한다. 정부 관리들은 이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이들을 고발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들의 가족인 경우도 있다. MBB들은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핍박을 겪으며 심한 경우 가족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기도 한다. 요르단에는 부족주의가 매우 강하며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이슬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개종자들이 이제는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 급진적인 이슬람 운동으로 인해 기독교인을 비롯한 타종교의 요르단 국민들이(심지어 무슬림들마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시리아나 이라크, 이집트 등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박해수위가 낮은 편이며 현재까지는 IS 사상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다. 그러나 IS는 2016년 12월 18일 유명 관광지인 카락성(Karak Castle)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으며 IS가 테러의 배후를 주장했다. 요르단 정부는 여러 기독교 교파 중 일부만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성교회 또한 정부가 신생 복음주의 교회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고는 한다.

2. 박해배경

요르단은 다민족 사회이며 이는 왕가의 구성원에서도 반영된다. 전 요르단 국왕 후세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며 그의 두 번째 부인, 즉 현 국왕인 압둘라 2세의 어머니는 영국인이다. 압둘라 2세 국왕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왕비를 맞았다. 요르단 국민의 다수가 1948년과 1967년에 아랍-이스라엘 간 전쟁을 피해 피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1950년대 초에 요르단 시민권을 얻었다. 팔레스타인 출신 요르단인(웨스트뱅크)들은 베두인의 후손들인 다른 국민들(이스트뱅크)에 비해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스트뱅크들이 왕가에 더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르단 정부는 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비롯된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2016년 12월에 시리아 출신의 난민은 65만 5314명, 이라크 출신의 난민은 6만 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같이 요르단은 세계 인구 1천명 당 난민 수용수가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요르단 국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또한 많은 난민의 수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압력을 강화시키고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르단의 기독교 인구는 1946년 독립 이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이 낮은 반면 이민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많은 무슬림 난민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독교인(특히 복음주의 교회와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전도를 하지 않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

요르단은 오랜 기간 주변국가들에 비해 종교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역사적인 전통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아직 비교적 높은 수준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슬람 급진주의가 증가함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이나 MBB를 포함한 사역에 대해서도 압력과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요르단의 이슬람교 시아파(Shi'a)와 드루즈파(Druze, 이슬람교 시아파의 한 분파) 그리고 바하이교(Bahai)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수니파 무슬림이 시아파로 개종하는 것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바하이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들의 종교행위는 허용되고 있다. 요르단 민사여권국은 바하이교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드루즈파는 사회적으로 차별되고 배제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거주한다. 바하이교와 마찬가지로 드루즈 신앙도 요르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 각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요르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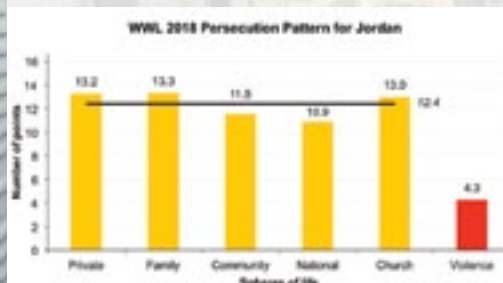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요르단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박해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요르단의 기독교 박해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평균 기독교 박해점수는 작년 12.3점에서 올해 12.4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박해점수가 상승한 사유는 작년보다 많은 박해정보가 수집,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요르단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으며 삶의 영역 중 개인, 교회, 가정 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민족적 적대감이 결합된 전형적인 이슬람 탄압이 주요 박해 요인으로 꼽힌다.

- 이슬람 탄압으로부터 오는 기독교 박해는 개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며,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작용한다. 가족, 지방정부 및 타종교 지도자들은 요르단의 기독교 박해를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 폭력 점수는 전년도 1.5점에서 올해 4.3점으로 증가했다. 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비록 개종자들에게서 나타났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발생했다. 보고된 수많은 폭력 사건들이 요르단의 박해점수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 전반적으로 요르단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박해는 무슬림 배경신자들에 대한 심각한 기독교 탄압과 무슬림 대상의 전도 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및 목회자들이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특징 지을 수 있다.



개인영역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다. 만약 개종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종교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족영역

특히 무슬림 배경 신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시달릴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가족들은 개종 사실을 경찰에 알려 개종자들이 체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개종자들은 자녀 양육권을 잃을 가능성마저 있지만,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공동체영역

또한 무슬림 배경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공동체에 알려지게 될 때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박해에 시달릴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차별에 시달리며, 구직활동 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 상담, 실질적인 가르침을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은 일상생활의 위협과 방해로 나타나며, 지역 공동체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가영역

개종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긴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





들은 국가로부터 박해에 시달린다. 요르단의 국교는 이슬람이며, 헌법은 샤리아 법(Sharia law)을 최고로 여긴다. 개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현상들은 종교재판소에서 처리된다. 무슬림들이 샤리아 법정에 서는 반면, 정교회(Orthodox), 천주교(Catholics), 성공회(Anglicans)와 같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역시 종교재판소 소관이다. 당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무슬림이 포함돼 있으면, 해당 사건은 샤리아 법정에서 다뤄진다. 샤리아 법정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개종자들은 무슬림으로 간주되거나 변절자로 여겨진다. 요르단 정부는 18세 미만 아이들의 보호자가 이슬람으로 전향하면 그 자녀들까지도 무슬림으로 간주한다.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이슬람 형법을 적용 받는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가족들에 의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무슬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샤리아 법원의 권한 아래 영향을 받게 된다. 샤리아 법정은 개종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을 빼앗을 수 있고,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권마저 빼앗을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보안기관 직원들이 개종자들을 심문하거나 법정에서 협박과 함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심지어 이슬람으로 회귀 시, 일자리 제공과 같은 보상을 약속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취업 또는 개업에 적합한지를 나타내주는 증명서를 개종자들에게 발급해 주지 않거나, 고용주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직원들을 해고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무슬림 배경 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모

든 피해 사례들은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교회영역

개종자들 대부분이 박해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비-정통 기독교 교파의 경우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개종자들은 합법적이든, 공개적으로든 어떠한 교회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요르단의 종교적 제약은 덜한 편이다. 특히, 역사적인 교회들이나 경우 종교적 제약이 덜한데, 이는 국제 사회에 알려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 등록과 관련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교회 건축을 위해 허가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교묘한 방법들로 수많은 차별에 시달린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복음주의 교회 및 개종자들 중심의 지하교회 활동들이 비밀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 기독교 책자 및 자료들은 공개적으로 나눠줄 수 없으며,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폭력

- 교회가 공격 당하거나 폐쇄된 사건이 세 차례 발생했으며, 2017년 1월 6일 교회 납골당의 공공기물이 파손당하고, 성모 마리아상을 깨뜨렸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상대로 한 기물 파손 행위는 요르단에서 흔치 않다.



- 2018년 기독교박해지수 보고기간 동안 개종자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가정집이 공격 당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 몇몇 무슬림배경신자들은 신앙과 관련해 직, 간접적인 이유로 체포 당했다.
- 몇몇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 많은 무슬림배경신자들이 집에서 쫓겨 나가거나 가족들로부터 숨어 지낸다. 또한 요르단 국, 내외로 이주할 곳을 찾고 있다. 몇몇 해외 선교단체들이 종교 활동으로 인해 요르단에서 강제 추방 당했다.

성별에 따른 박해의 특징

여성: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박해에 특히 취약하다. 남편이 무슬림인 경우, 다른 기독교 여성들 역시 불평등에 시달린다. 여성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해에 시달리게 된다.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신앙이 발각될 경우 기독교 여성들은 집안에 감금되거나 성추행, 강간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요르단에서는 강제 결혼이 흔한 일이며, 여성 개종자들은 무슬림 가족들로부터 수치심의 대상이며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자 하는 가족들에 의해 낯선 남자에게 시집 보낸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 설령 그들이 국외에서 결혼했는지라도 요르단 정부는 그 결

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여성은 국가의 종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실 확인을 거쳐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기독교 여성은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상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혼할 남성이 여전히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남성과 결혼한 개종 여성들은 학대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여행에 제약을 받기도 하는데, 여행 금지지는 가족들뿐 아니라 정부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여성 개종자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허가 없이 여행했다'는 이유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여성 개종자들은 또한 강제 이혼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는데 배우자 가족들의 영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16년도에 발표된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요르단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배교자'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샤리아 법정을 통해 결정되며, 판사는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은 부모가 아닌 무슬림 가족들에게로 넘어가거나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며, 심지어 재산권마저 무슬림 가족들에게 이관된다. 만일 무슬림 남편과 비-무슬림 아내가 이혼할 경우, 비-무슬림 아내는 자녀들이 7살이 되는 해에 자동적으로 양육권이 박탈당한다. 만약 이혼한 기독교 여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면, 자녀들의 양육권을 다시 얻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혼당한 기독교 여성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수 차례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설득, 강요 받게 된다. 간략히 요약하면, 개종자들이나 무슬림 남편을 둔 기독교 여성들이 안정된 가정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남성: 고용 차별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게 일어난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차별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장 전통적이며 부족사회로 잘 알려진 요르단에서 남성은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대들보"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샤리아 법은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남성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결혼을 위해서 남성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 무슬림배경의 기독교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독교 남성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의 합법적인 결혼은 불가능하다. 또한 샤리아 법은 기독교인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면, 그 남편 역시 무슬림으로 개종해야만 그들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결한다. 결국, 기독교 가정의 박해는 이민으로 이어져 미래의 종교 지도층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는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수행할 남성들이 줄어들고 있다.

요르단(Jordan)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종교적 상황

요르단 사회 내에서 이슬람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시리아로 향하는 지



하드 투사들은 요르단을 지나간다. 요르단 출신인 상당수의 이슬람 투사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급진파 무슬림과 함께 싸우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고 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한편, 압둘라 2세는 사회개혁을 추진하며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소수 종교 종족에 유리한 시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는 분리되어 불안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 보수파 사이에서 더욱 그러하다. 2016년 9월, 한 기독교 정통파 가정에서 자란 무신론자이자 유명한 작가가 이슬람 국가를 조롱하는 만화를 그린 것 때문에 사법권 없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망사건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이슬람 급진파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이슬람 급진파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압력이 증가했다.

정치적 상황

요르단에는 두 개의 주요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압둘라 2세와 왕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군부대와 비밀 경찰이다. 압둘라 2세는 그가 권리를 임용하고, 법안을 승인하며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왕실은 요르단을 현대적이고 다 종교 국가(사회 내에서 자국의 기독교 신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로 홍보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반면, 비밀경찰들은 소수의 이슬람 파당을 억압하고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일에 좀더 관심이 있는 듯 하다. 2016년 9월에 치른 하원선거에서 거의 약 10년동안 선거를 거부했던 이슬람 행동전선(IAF)이 참여해서 130석중에 15석을 차지했다. 이들은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집단이다. 9명의 기독교 신자들(소수 종교 종족으로서 기독교 사회에 최소한으로 할당된 수) 또한 하원에 당선되었다. 비록 이슬람 행동전선이 단기간 내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조직화된 반대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 경제적 상황

요르단은 석유자원과 천연자원이 없어 외국 원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주요 원조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로 미국과 유럽의 원조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르단은 이러한 나라들이 끼치는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걸프협력회의(GCC)를 비롯하여 예멘을 제외한 걸프 지역 국가 내에서 정치경제 및 군사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요르단 사회는 다민족 국가로 또한 군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고 후세인 1세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으로 두 번째 아내이자 압둘라 2세의 어머니는 영국사람이다. 압둘라는 팔레스타인과 결혼했는데, 인구의 다수가 팔레스타인으로 그들의 대부분은 1948년과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의 결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다. 그들 중 대다수는 1950년 초 시민권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요르단 사람들(Westbankers)은 베두인 혈통족 출신(Eastbankers)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수세기 동안 한 지역에 거주해왔다. 웨스트뱅크들은 군대와 정부기관, 공공분야(공공분야는 오직 이스트뱅크들에게만 한정되었음)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으며, 이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위한 민간 부분만 남겨졌다.

게다가 웨스트뱅크들은 경제기관과 학교, 보건기관에서도 이스트뱅크들보다 차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스트뱅크들은 왕실출신인데 많은 다수의 국적이 왕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르단 시민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불확실하다.

또한 대부분 시리아에서 넘어온 많은 수의 난민들로 인해 경제와 정치, 종교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잠재적인 불안정 인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경제적 위험은 높은 빈곤율과, 실업, 불완전 고용, 예산과 경상수지 적자, 국가 채무



문제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요르단 사람들을 섬기는 학교와 존경 받는 인도적인 비정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타임지는 전체 인구 중 2퍼센트가 누리는 상대적인 재정 번영이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지탱한다고 보도했다.





2018년 어린이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박해 세미나를 통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쉬크하르(Shikhor)는 어렸을 때 앓았던 소아마비로 인해 걸을 수가 없다. 그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겪은 일들을 오픈도어 동역자들에게 나누었다. 박해 세미나는 오픈도어의 주된 세미나로서 특별히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2012년에 그리스도인이 된 쉬크하르는 박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들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다.

쉬크하르는 그의 가족 중에 유일한 기독교인이며, 그의 가족들은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고, 기독교인들이 그를 세뇌하였다며 쉬크하르를 위협하고 놀리고 매일같이 그를 구타하였다. 비록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몸에 장애를 가진 쉬크하르는 그의 형들과 부모로부터 버려졌다. 그리고 그는 교회 일을 도우면서 한 목사님 집에 몇 달을 머물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그의 부모님 집으로 되돌아 갔고, 가족으로부터 모욕과 구타를 당해도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그는 그곳에서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모임과 성경을 더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박해는 끊이지 않게 찾아왔고, 그의 형은 때때로 찾아와 아무 말없이 발로 차고 가는 일이 많았다. 쉬크하르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로 인해 등과 목에 부상을 입어 20일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심지어 의료진조차 그를 적절하게 치료하지도 않고 음식조차 주지도 않았다. 이유인 즉 그의 친척들이 병원으로 와서 의료진에게 쉬크하르가 힌두교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며 그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식사 시간에 배식 담당 직원들은 그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배식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쉬크하르는 절망을 느꼈고, 그저 침대에 누워서 흐느껴 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큰 절망을 느꼈고, 너무도 큰 낙심에 쌓여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다. 그는 몇 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으며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목사님이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고, 늘 점심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 목사님 또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그를 돌보았던 것이다. 쉬크하르는 정부에서 최저생계자들에게 지급하는 토지와 집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처음에 이런 혜택을 알고 정부 관리자에게 문의 했지만, 그가 믿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박해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 처음에 그가 박해와 직면했을 때, 화가 나고 종종 그를 박해한 사람들에게 앙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박해 세미나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절대로 앙갚음을 하신 적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박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쉬크하르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한 책임 의식 또한 느꼈다. 그래서 그는 세미나에 올 때 다섯 명의 청년들과 함께 왔고, 그 중 한 명의 청년이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쉬크하르가 낙심할 때면 위로하곤 한다. 쉬크하르에게 삶은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하다. 그에게 수입은 없고

그저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1,600루피가 전부이다. 그는 이 돈을 사역을 위한 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의 부모님에게 아주 기본적인 식 재료를 공급한다. 이 때문에 그나마 부모님이 그를 심하게 대해도 그가 부모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는 특히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부분이 크게 와 닿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리더들은 박해의 한가운데에 계속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또한 이런 리더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마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를 죽여 마을의 하수구에 버릴 것이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는 물러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범죄라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기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라고 하자 그를 협박한 힌두교의 극단주의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이번 박해 세미나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1)



니말(Nimal)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키워왔다. 4년 전 오픈도어의 도움으로 그는 벽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뿐 아니라 스리랑카 교회의 미래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정오의 타 들어가는 태양빛에 덜 말린 벽돌과 타일들을 말리느라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져 간다. 52세의 니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스리랑카 교외에 위치한 작은 작업장에서 보낸다. 니말은 18년 동안 전문적으로 벽돌을 만들어왔고 그리스도인이 된지는 31년째이다. 그는 콘크리트와 속이 빈 시멘트 블록을 만드는 일을 하며 일일 노동자로서 살아 왔다. 그가 21세가 되었을 때 한 기독교 소모임에 초대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능력의 주님을 영접했다.

“그 당시 저는 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스펠송을 연주할 때 마치 저녁 음악회에 온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제 호주머니에는 담배 5개비가 들어있었죠. 찬양을 들으며 평소처럼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는데 그 찰나에 저도 모르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는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양이 연주되는 곳으로 이끌렸고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 니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하여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인 이었고 가난했으며 심지어 영어로 진행되는 예배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 누구도 저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대할 때 늘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문맹인인 니말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주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었다. 니말은 비록 자신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순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기만 했는데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다고 간증한다.

“제가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는 없었지만 주일 설교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 깊이 새겨 주시는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 후 2-3년이 되자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목사님 설교 도중 주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능을 주시겠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전하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제가 밖에 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과 상담할 때 주님께서 저를 꼭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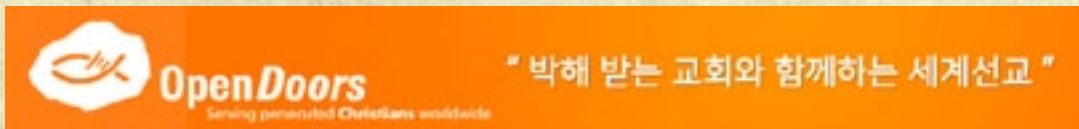
니말은 먼 이웃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곤 한다.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인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 항상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특히 이는 기독교인은 스파이라는 스리랑카인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니말과 그의 친구들이 정글 속 기독교 캠프로 가는 도중 폭력배들이 난입하여 그들이 가진 돈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책과 교인들 연락처까지도 모두 몰수해가는 사건이 있었다. “한 사람이 작은 열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니말은 상기되었다. “그들이 우리 자전거를 멈춰 세웠을 때 다른 젊은 남성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자전거에 꽂혀있는 깃발을 제거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연락처를 빼앗았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몰수해갔습니다. 우리가 CIA에 소속된 스파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적개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니말을 공격하고 있다. “제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웃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평소와는 달리 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진정한 환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초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논쟁을 벌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속내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비웃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폄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한국오픈도어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하였습니다.
접속해 둘러 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opendoors.or.kr/>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한국오픈도어’** 로 검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년 한해 동안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도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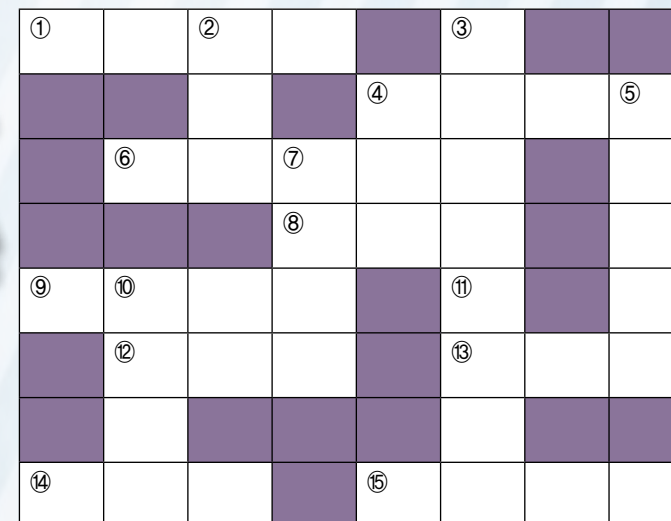
전화: 02) 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오픈도어 박해퍼즐



● 가로열쇠

- ① 빌레몬의 노예.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간 재물 (1:9-10)
- ④ '젓처럼 희다' 는 뜻. 이 지방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 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성읍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전 16:1; 갈 1:2; 딤후 4:10).
- ⑥ '수목이 우거진 언덕' 이란 뜻. 사사 에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 이곳으로 피신하였다(삿 3:26).
- ⑧ '소유' 란 뜻. 므깃도 북방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성읍(수 15:44).
- ⑨ '움푹 패인 땅' 이란 뜻.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별한 뒤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 중 하나(창 25:2)
- ⑫ '성읍들' 이란 뜻. 모압 지방의 요새화된 성읍이다(대 2:1-3).
- ⑬ '완강하다' 는 뜻. 예루살렘 남서쪽 45km 지점에 위치한 유다 남부의 전략 요충지. 아바사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곳(대하 25:27).
- ⑭ '정금' (精金)이란 뜻. 당시 금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단 10:5). 아프리카 소마릴랜드 연안 도시로 추정되나 확실한 위치는 불명확하다.
- ⑮ 가나안 점령 후 잇사갈 지파가 얻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일부로, 지금의 '엔 나우라' (en-Na 'ura)일 것으로 추정된다(수 19:19).

● 세로열쇠

- ② 이 사람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두 종을 찾으러 간 일로 인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다(왕상 2:36-46)
- ③ '비밀' 이란 뜻. 멜리데 섬을 떠나 보디올로 향해 하던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곳에 3일 동안 정박해 있기도 했다(행 28:12).
- ⑤ '나의 형제는 노함' , '진노의 형제' 란 뜻. 사울 왕의 아내인 아히노암의 아버지(삼상 14:50).
- ⑦ 사울이 도피한 다윗을 추격할 때에 이 곳으로 걸어 가면서 예언을 함(삼상 19:18-24)
- ⑩ '독자' 라는 뜻. 헤롯 대왕의 증손자.(A.D. 53년 즉위, 100년 사망). 사도 바울은 이 사람과 베스도 앞에서 심문을 받 았다.(행 25:23-26:32)
- ⑪ 다윗에게 자신의 타작마당을 팔았던 여부스 사람로(삼 하 24:16), '오르난' 과 동일인(대상 21:20).

■ 지난호 정답 ■

고	향					에	
모		브			빌	라	도
라		엘	리			스	
	마	라				도	
		해		에			
나	사	로		브	니	엘	
아		이	스	라			
만	나			다		야	곰

■ 지난달 당첨자 ■

조영환, 양미라, 조원영 님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 (2018년 6월 10일까지)

300기도 용사 모집



오픈도어가 복음을 들고 찾아 가는 곳은 전 세계의 핍박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란 본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긴급 기도 제목들이 올라 옵니다.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긴급히 기도 부탁을 하는 간절한 내용들이 배달됩니다. 이에 우리 한국 오픈도어에서도 SNS를 통하여 본부에서 올라 오는 긴급 기도 제목들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기도 용사들은 수시로 올라 오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골방에 들어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눈뜨고 간절한 맘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암흑같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때도 전 세계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정이 알려져 기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진 빛을 갠아야 할 때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동참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정보를 오픈도어 메일(odsk@opendoor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010-7573-3171/엘리사 간사)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신 정보는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 이름:
2. 연락처:
3. 이메일주소:
4. 카카오톡 or 페이스북 주소:
5. 주거지역: ex) 서울, 경기, 경남, 전남 등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주의 뜻이 실현됨을 믿고 많이 동참해 주세요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 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 만 명이

국내살상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 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 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884982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8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